

민주당 대선주자들 ‘광주·전남 공약’ 이 없다

권력투쟁에만 집중 지역민 불만 목소리 고조
호남 경선 앞두고 이 전 대표 광주 방문 주목
홍준표, 무안 4대공항 육성 지역발전 현실적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호남 경선을 앞두고 광주·전남 민심을 잡기 위한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후끈 달아 오르고 있지만 오히려 권력투쟁에 급급한 나머지 정작 광주·전남 지역을 획기적으로 바꿀 공약은 전무해 지역민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5면

특히 여권 후보들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무늬만 호남 공들이기'로 사실상 지역민들로부터 민심을 얻지 못해 야권 후보들의 공약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7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광주·전남 공약은 기존에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들로 별반 차이가 없다.

광주는 군 공항 이전, AI(인공지능) 산업기반 조성, 광주형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 육성,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활성화 등이다.

전남은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우주·항공산업 유치, 혁신공항 건설, 지역 의대 설립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들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을 획기적으로 바꿀 독자적인 공약은 전무한 상황이다.

무늬만 호남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여권 후보들이 권력투쟁에 매몰되면서 지역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정환 전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주·전남지역의 낙후된 경제를 살리기 우선이다"며 "대선 주자들도 호남에 대한 획기적인 균형발전공약을 제

시하고 실질적으로 지역민의 삶 길을 내놓은 큰 비전과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후보의 무안공항 활성화 공약이 그랜드하고 가장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우리나라 항공 수출 화물의 98.2%가 인천공항을 통해 물류가 이동되다보니 첨단 산업이 광주, 호남으로 못 내려온다"며 "무안공항을 우리나라 4대 관문공항으로 만들어 호남 발전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히, 지역발전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공약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충청권 경선에서 일격을 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뒷발인 광주를 찾아 지역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8일 오후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전남지역 대표공약을 발표 하고 민심구애에 나선다.

민주당에서 호남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데다 선거인단 표심을 호남이 좌우하는 만큼 호남의 승리를 바탕으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추격하고 경선을 결선투표까지 끌고 갈 동력을 만들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호남 민심이 그동안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1차 슈퍼위크 경선 결과가 미칠 영향에 관심이 크다"며 "충청권 경선에서 패배한 이낙연 전 대표가 고향인 호남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지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1차 선거인단 투표(슈퍼위크·12일)와 추석 연휴 직후에 치러지는 25~26일 호남지역 경선에서 사실상 대세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철 기자



7일 오전 광주시 북구 한 중학교 강당에 임시선별진료소가 마련돼 학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해당 학교에 학생 11명과 교직원 2명 등 총 1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김생훈 기자

도청 간부 공무원 갑질·금품수수 공개 파장

유튜브 콘텐츠 제작...특정업체 밀어주기 도의원 개입설도

전남도 대변인실 소속 A사무관이 업무와 연관된 민간인에게 갑질행위와 함께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투서가 공개돼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와함께 전남도의 콘텐츠 외주 제작 계약 과정에서 한 도의원이 개입해 특정업체를 과도하게 밀어 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향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익명의 제보자가 공개한 투서에 따르면 전남도 대변인실 소속 A 사무관의 '갑질', '부당해고', '향응 제공' 등이 폭로됐다.

투서에서 제보자는 "개인의 일상 스케줄과 행동까지 관여했고 무료로 행사 MC를 보게 하거나 노래를 부르도록 강압적으로 시킨 경우도 허다했다"며 "출장 시 제작 용역업체도 직원도 아닌데 항상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다녔다. 식

대나 톨게이트 비용은 사비로 항상 결제했으며 출장 후 식대 영수증과 톨게이트 영수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과 대변인실 유튜브 콘텐츠 제작 관련자들이 갑질 현장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향응제공 부분에서 제보자는 가방, 카드리지, 벨트 등을 A 사무관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를 명백히 제시했다.

제보자는 A 사무관에게 준 가방과 카드리지갑 비용 33만8,000원과 8만8,200원 상당의 벨트를 선물한 증거로 금액과 구매 내역이 찍힌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첨부했다.

제보자는 "A 사무관 가족이 남악에서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는데 양파 등 식재료(농산물)를 가져갔다"고 덧붙였다. 부당해고 부분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서를 제기한 자신을 부당해고 시켰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전남도 뉴미디어팀이 외주 제작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 전남도는 외주 제작 콘텐츠 총 52건 중 20여건을 여수지역 B업체와 수의계약했다.

B업체가 제작한 동영상은 제외한 32개의 영상을 10개 회사가 나눠 제작 한 점을 미뤄봤을 때 지나치게 특정업체에 편중된 계약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여수 출신 강 모 전남도의원이 개입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또 강 모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의원실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 A사무관을 비롯한 유튜브 담당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A사무관과 B업체를 비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면으로 이어짐 /길용현 기자

광주·전남, 학생·교직원 잇단 감염 교육당국 긴장

광주·전남 일선 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해 교육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7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 북구 모 중학교에서 학생 12명과 교사 2명, 가족 1명 등 15명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해당학교 1~3학년 학생 312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1.3학년 수업은 17일까지 원격으로 진행된다. 확진된 가족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남지역 학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광양과 순천을 중심으로 학생과 가족 등 40여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광양의 경우 학생 22명과 가족 8명 등 30명이 확진되며 지역 감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방역당국은 해당 학교 학생과 가족, 교직원, 학원 관계자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2,60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나라 기자

순천공고서 또래학생 집단폭행 파문

▶6면

2021. 10.1^[금] - 10.3^[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 보성 판소리 성지

제23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전국 판소리·고수경연대회

접수기간 2021.8.16. ~ 9.24.18:00까지 도착본

접수방법 본인 및 대리신청, 방문·우편·e-mail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신분증 지참(대회 당일)
※ 판소리 명창부: 완창 또는 2시간 이상 발표 경력 증빙 자료 제출(9.28.까지)

참가비 없음

접수처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보성문화원)
·우편 및 방문 (59453)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281-11 보성문화원
·e-mail bs2629@hanmail.net

접수안내 (061)850-5892, 서편제보성소리축제 홈페이지
http://www.boseong.go.kr/tour/festivity/sopyonje

※ 무관중 경연대회, YouTube 실시간 송출

주최 **보성군** 주관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교육청 보성문화원